

기업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행태 분석

이상욱·권철우·남윤미

(연구 배경)

-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청년층 고용은 악화되고 있음
 - 2000~2015년 중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.1%에서 56.7%로,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.0%에서 36.5%로 상승
 - 반면, 동 기간 중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.2%에서 45.7%로,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은 23.1%에서 15.1%로 하락
- 연령대별 고용비중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특성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, 기업의 연령별 고용행태를 분석

(분석 방법)

- 한국노동연구원의 「사업체패널조사」*를 이용하여 기업의 청년층(30세 미만)과 고령층(50세 이상) 고용행태를 추정
 - * 2005년 이후 시행되었으며 각 사업체의 고용현황을 30세 미만, 30세 이상 50세 미만,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
 - 기존연구와 달리 고용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별 미시자료(「사업체패널조사」)를 활용

문의처: 강환구 미시제도연구실장 (☎5546)
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(육아휴직중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종속변수는 각 사업체의 총고용에서 연령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며, 설명변수는 각 연령별 평균임금 및 비정규직 비중, 기업 규모, 업력, 컴퓨터 활용도, 수도권 소재 여부 등 각 사업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

(분석 결과)

□ 분석 결과,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았으며 임금 및 다양한 기업 특성이 연령대별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

- 청년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*,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기업, 규모가 큰 기업, 업력이 짧은 기업, 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서 청년층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반면, 고령층의 고용비중은 고령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*, 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기업, 규모가 작은 기업, 업력이 오래된 기업,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서 높게 나타남

* 고령자의 경우 임금이 낮아도 취업의사가 높은 반면, 청년층은 임금이 높은 기업에 취업하려는 경향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

(시사점)

□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특성별로 연령대별 고용비중이 상이하므로 연령대별 고용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접근이 필요함을 시사

-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생기업 육성 지원, 기업 내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 제고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